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남녀간 다중집단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김진희^{*1)} · 조옥귀^{**}

경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on : Multiple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Male and Female Students

Kim, Jin-Hee^{*1)} · Cho, Ok-Kwi^{**}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marital conflict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on. Also it examined the differences of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earcher surveyed 500 questionnair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was using 444 questionnaires in the final analysis. To analysis the data,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the multiple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was used. It was shown that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highly perceived their interparental conflict, the higher the aggression. Interparental conflicts significantly affected on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on in male and female students. It was shown, also that in the male middle school students who highly perceived their interparental conflict than girl students who highly perceived, the higher the aggres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parental roles have effects on middle school students' problem behavior.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on are influenced by interparental conflict. Accordingly, this study has significances by proposing methods of efficient parental consultation and education to resolve parental conflicts.

Key words: 부부갈등(Interparental Conflict), 공격성(Aggress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족은 사회화 과정의 첫 기관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적응 양식을 습득하고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일차적인 환경이다. 부모는 최초로 자녀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면서, 강력한 모델로서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부갈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부적응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한 원인으로 심각한 부부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자녀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의 적극적인 보살핌이 필요 하고 부모와의 안정적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는 유아기나 아동기의 자녀에게 부부갈등이 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갈등은 청소년기가 되면 만성적일 가능성이 크며 청소년기 이후에 이어지는 성인기에 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가 성숙함에 따라 아동기 때 접했던 부부갈등과 청소년기에 접하게 되는 갈등의 지각 정도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서 지속되고 누적되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부부갈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의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청소년 자녀가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자주 목격할수록 자녀의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Lee & Chung, 2004). Chae(2005)은 부모의 갈등 정도가 높은 집단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우울, 비행,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Eoh, 2005)나 부모의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가 증가한다는 연구(Lim, 2005) 등이 있어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모-자녀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Grych & Fincham, 1990). 즉, 부모의 부부갈등은 직접적으로 공격적 행동의 모델링을 통해 학습하게 되어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낳게 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는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낳게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갈등과 자녀의 적응문제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힐 뿐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양자 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다 정확한 관련성을 알기 위해 중재요인이나 매개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Grych & Finechman, 1990).

부부갈등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자녀의 성별에 따라 나타내는 문제유형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부부갈등에 대해 남아의 경우는 공격성과 행동문제를 여아의 경우에는 사회적 위축과 불안증상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lock, Block, & Gjerdr, 1986; Cohn, 1991). 또한 남아와 여아 간에 문제유형이나 그 정도에 있어 성차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Johnson & O'Leary, 1987; Long et al, 1988).

이처럼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인가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와 관련된 연구는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매개변인 없이도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요소들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연구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올바

른 자녀양육 태도나 좋은 부모-자녀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만한 부부관계가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라 좀 더 세심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부부갈등이 남자와 여자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여 매개변인 없이 부부갈등만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자녀양육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또한 부부갈등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영역과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중학생의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나누어 검증한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간 경로 차이를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으

로 가출, 언쟁, 신체적 싸움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전략들이 포함된다(Jang & Shin, 2006). 부부관계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구성원 간의 친밀도가 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서로의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정도가 타인보다 훨씬 높고, 또한 그 기대에 대한 좌절감도 훨씬 높기 때문에 갈등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기술이 부족하면 부부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다(Mok, 2012).

부부갈등은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Kwon & Lee, 1997). Davies와 Cummings(1994)도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다차원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한 원인으로 심각한 부부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자녀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부부갈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표현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Kim, 2007; Buchler & Gerard, 2002). 이처럼 부부갈등은 여타 이해관계에 얽힌 다른 어떤 갈등보다 더 치명적이며 잠재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할 수 있다(Cho, 2008). 더욱이 부모와 자녀는 수직적 관계에 있으므로 부부간의 갈등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Grych, Harold, & Miles, 2003).

부부갈등을 파악할 때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보다 자녀의 지각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Grych, Seid 그리고 Fincham(1992)은 부부갈등에 대한 인지-맥락모형(cognitive-contextual framework)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부부갈등이 실제 양상보다 청소년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보고한 갈등의 정도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갈등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청소년은 그 갈등정도를 평가 절하하거나 평가 절상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서 자녀의 지각을 중요하게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연구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다루었다.

성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나타났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고(Park, 2012), 남녀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내용과 자기비난 요인에서만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점수가 높다(Kim, 2011). Mok(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간의 갈등 중 갈등의 빈도, 갈등의 정도, 갈등의 내용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고,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비난 요인에서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Kim(2010)은 부부갈등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남아와 여아는 부부갈등에 동등하게 노출되며 부부갈등을 동등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Jang, 2010; Kim, 2010; Cho, 2010; Hong, 2011) 등이 있다.

2. 청소년의 공격성

공격성이라는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서 혹은 이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 접근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공격성을 단지 관찰 가능한 특성 및 행동을 가지고 정의하는 관점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둘째, 공격적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의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포함하여 정의하는 관점이다.

두 번째의 입장은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고려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Lee(2006)는 공격성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Tremblay(2004)는 공격성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군가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체적·정서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지닌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및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구 내지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Lee, 2012에서 재인용).

Crick과 Groperter(1995)는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공격이란 개인이 공격 유

발 대상에게 직접 행하는 신체적인 공격과 언어적인 공격을 포함한 개념을 말하며, 관계적 공격은 집단 내에서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한 개인을 위협하거나 소외, 배제하려는 집단적인 공격의 형태라고 하였다. Buss와 Durkee(1957)가 정의한 공격성의 하위유형은 신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 적의성으로 구분되며, Kauggman(1981)은 공격성을 표현 방법에 따라 수동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자기 회피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Bae, 2012에서 재인용).

3.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 간의 지속적인 부부갈등은 아동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고, 부적응 발달을 예측해주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중학생 시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갈등 사이에 끼인 기분을 더 느끼게 됨으로써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정환경의 불안정성이 이 시기의 불안한 정서와 맞물려 위기를 더욱 극단적이고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한다(Buchman, Maccoby, & Dornbush, 1991).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의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를 보면, Lee(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고, 부모의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Jo(201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2010)에서 부모간 갈등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모두 유의하다고 밝혔다.

부부 갈등의 하위 요소 중 특히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은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고, 청소년 비행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Cho, 2008). Kwon & Lee(1997)은 부부갈등의 하위요소 전체와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며 부부갈등의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Nam (2010)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갈등은 문제행동에 대해 11%의 설명력을 가지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중 빈도만이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언한다고 제시하였다.

부부갈등에 의해 자녀의 심리적 적응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자녀의 성별에 따라 나타내는 문제유형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Grych & Finchman, 1990). Jang(2010)은 많은 연구들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Emery & O’Leary, 1982; Porter & O’Leary, 1980)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남아가 부부갈등의 영향에 더 취약한 경향(Emery & O’Leary, 1982;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정리하였다.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지 않았으며(Hong, 2011), Cummings, Davies와 Simpson(1994)은 남아의 경우 부모의 갈등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여아의 경우는 부모의 갈등에 대해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 내면화문제를 더 많이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arold(1997)의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의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간접 경로만이 유의미하였고, 내현화의 경우에는 여아에서는 간접경로만 유의하였으나 남아에서는 직·간접 경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3개 중학교와 김해시 소재 1개 중학교의 재학생이다.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보낸 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중학생 시기에는 청소년기 발달단계의 특성과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부모간 갈등을 보고할 수 없는 한부모 가족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44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0.2%, 여학생 49.8%이고, 성적수준은 ‘중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1%이고, 다음 ‘하’에 속한다고 평가한 사례가 22.5%였다. 계층은 중류층이라고 보고한 사례가 46.6%로 가장 많았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중학생의 공격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부모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amp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56	47.7
	Female	281	52.3
Academic record	the best class	72	16.4
	the second class	269	61.1
	the low class	99	22.5
Social class	the upper classes.	185	42.0
	the middle classes.	205	46.6
	the lower classes.	50	11.4

Table 2. Composition of Scale & Reliability

Scale	Sub Scale	Item	Reliability (Alpha)
Interparental Conflict	Conflict frequency	5	.854
	Conflict severity	5	.808
	Conflict solution	5	.812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6	.665
	Verbal aggression	6	.688
	Indirect aggression	6	.672
	Negation	6	.671
	Agitation	6	.706

어 있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성적, 계층을 조사하였고, 부모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시키기 위해 가족구성을 알아보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최종 질문지 문항과 하위 요인별 신뢰도 값을 살펴보면, 갈등빈도 $\alpha = 8.54$, 갈등강도 $\alpha = .808$, 언어적 폭력 $\alpha = .688$, 흥분성 $\alpha = .706$ 이고, 자세한 신뢰도 값은 <Table 2>와 같다.

1) 부부 갈등 척도

부부갈등 척도는 Grych, Seid와 Finchman(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Kwon & Lee(1997)가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척도 가운데 갈등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란 가족구조가 해체되지 않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의 욕구가 상충되거나 목표 및 기대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외현화 되고 이를 청소년 자녀들이 지각하여 그들이 심리적 건강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갈등 특성요인은 ‘갈등빈도’, ‘갈등강도’, ‘갈등해결’을 말하는데 빈도는 부부갈등에의 노출정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의미하며, 강도는 부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의미하고, 해결은 부부갈등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의미한다(Jang, 2010).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음을 나타낸다.

2) 공격성

공격성 척도는 Cheon(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Buss와 Durkee(1957)가 개발한 적의성 검사(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 of Hostility)의 일부로 된 공격성 진단검사와 Murray의 욕구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Hwang(1964)의 욕구진단검사 중 공격 욕구검사를 참고로 하여 구성된 것이다(Kim, 2011에서 재인용).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대상에게 신체적 상처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성향을 측정하는 것이며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위협, 저주하는 것이고 ‘간접적 공격성’은 간접적으로 자신의 공격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성’은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의미하며 ‘흥분성’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이다(Bae, 2012). ‘자주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들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Table 3. Correlations among research variables

	Conflict frequency	Conflict severity	Conflict solution	Physical aggression	Verbal aggression	Indirect aggression	Negation	Agitation
Conflict frequency	1							
Conflict severity	.739**	1						
Conflict solution	.658**	.640**	1					
Physical aggression	.244**	.243**	.099*	1				
Verbal aggression	.242**	.180**	.038	.669**	1			
Indirect aggression	.202**	.225**	.114**	.637**	.702**	1		
Negation	.238**	.223**	.136**	.436**	.534**	.522**	1	
Agitation	.247**	.187**	.078**	.637**	.645**	.622**	.49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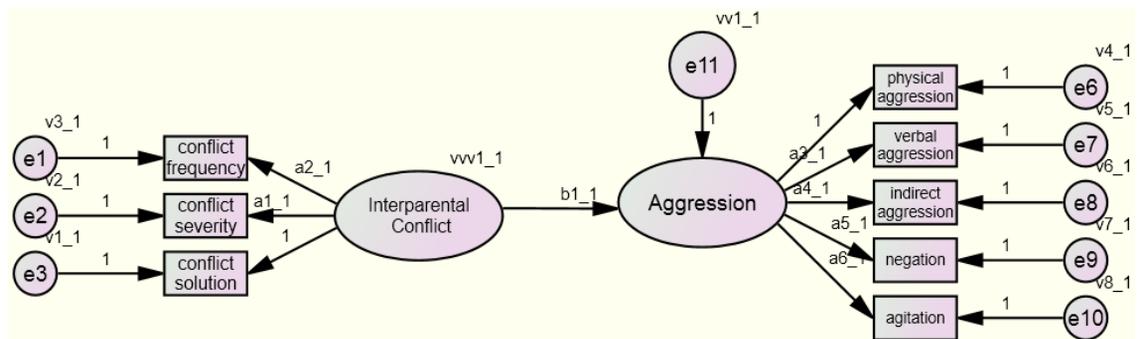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Unobserved variable	Observed variable	Mean	SD	Kurtosis	Skewness
Interparental Conflict	Conflict frequency	2.4059	.84652	.353	-.403
	Conflict severity	2.3486	.81690	.724	.154
	Conflict solution	2.2800	.78166	.475	.177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2.0163	.50515	.474	.182
	Verbal aggression	2.0000	.49190	.359	.371
	Indirect aggression	2.0742	.55743	.303	.016
	Negation	2.2800	.78166	.475	.177
	Agitation	1.9682	.53680	.577	.760

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기초통계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 <Table 4>와 같다.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Table 3), 갈등해결과 언어적 공격성 요인의 관계와 갈등해결과 흥분성 공격성 요인의 관계 외

에는 부부갈등과 공격성의 하위변인들 간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측정치들은 다변량정상성(multivariate normality)이라는 기본가정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Table 4>에서 보듯이 모든 관찰변수의 왜도값 및 첨도값이 절대치 1보다 작게 나타나 모수추정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모든 단일변수가 정상



(Figure 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adolescents' aggression

Table 5. Model fit summary

Model	χ^2	df	P	CFI	NFI	TLI	RMSEA
Unconstrained	80.947	38	.000	.976	.956	.965	.051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공격성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하였다 (Figure 1).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은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델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서 남녀집단 간의 차이 분석처럼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서로 다른 표본들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된다(Yu, 2012). 연구모형이 표본자료와 얼마나 부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 및 적합도지수(RMR, GFI, NFI, NNFI, RMSEA)를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고찰

1.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중학생의 공격성 점수에서 남자와 여자 집단간 차이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간 갈등과 공격성의 차이를 본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간 갈등 지각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점수가 남자 청소년의 점수보다 하위 요인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부부의 갈등 빈도를 높게 지각하고, 갈등강도를 강하게 지각하며, 갈등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결과이다. 공격성 변수에서는 부정성을 제외한 하위 요인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점수가 높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신체적, 언어적, 간접적, 흥분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전체 공격성 수준이 여자 청소년 집단보다 높다고 하겠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 정도가 더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 정도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Lim, 2005) 결과와 일치한다.

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Study Variables

Factor		sex		t
		Male(n=221)	Female(n=219)	
		M(SD)	M(SD)	
Interparental Conflict	Conflict frequency	2.293(.812)	2.519(.866)	-2.828**
	Conflict severity	2.229(.787)	2.269(.830)	-3.118**
	Conflict solution	2.185(.747)	2.375(.804)	-2.563**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2.108(.501)	1.192(.492)	3.913***
	Verbal aggression	2.095(.448)	1.903(.515)	4.179***
	Indirect aggression	2.147(.537)	2.000(.568)	2.803**
	Negation	2.207(.490)	2.218(.492)	-.235
	Agitation	2.019(.535)	1.916(.534)	2.026**

p<.01*p<.001

Table 7. Regression weights

	Male					Female				
	B	β	S.E	C.R	P	B	β	S.E	C.R	P
Interparental Conflict → Aggression	.306	.434	.058	5.282	***	.159	.243	.050	3.196	.001
Conflict frequency → Interparental Conflict	1.000	.708	-	-	-	1.000	.767	-	-	***
Conflict severity → Interparental Conflict	1.232	.843	.114	10.954	***	1.140	.848	.091	12.521	***
Conflict solution → Interparental Conflict	1.330	.866	.121	11.011	***	1.240	.884	.098	12.700	***
Physical aggression → Aggression	1.000	.744	-	-	-	1.000	.817	-	-	***
Verbal aggression → Aggression	.992	.826	.084	11.765	***	1.105	.862	.076	14.567	***
Indirect aggression → Aggression	1.143	.793	.101	11.332	***	1.174	.830	.085	13.889	***
Negation → Aggression	.812	.617	.093	8.764	***	.800	.653	.079	10.184	***
Agitation → Aggression	1.099	.766	.100	10.943	***	1.036	.779	.081	12.754	***

p<.01*p<.001

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의 지각은 남아가 여아보다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Park, 2012; Kim, 2005)들과는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Jeon, 2007; Jang, 2010; Hong, 2011; Park, 2012)는 연구들과도 다른 결과이다.

2.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남자와 여자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하였다(Table 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434(p<.001)$ 이었고, 갈등 강도($\beta=.843, p<.001$)와 갈등해결($\beta=.866, p<.001$)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여자 중학생 집단의 경우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beta=.243(p<.001)$ 이었으며 갈등 빈도($\beta=.767, p<.001$), 갈등 강도($\beta=.848, p<.001$) 그리고 갈등해결($\beta=.884, p<.001$)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빈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 중학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자 중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Kwon과 Lee(1997)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부갈등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Yang(2000)과 Kim(2003)은 부부갈등의 강도가 높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Lee와 Oh(2000)도 부부갈등이 자녀의 내현화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다. 또한 Lee(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내현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Jang, 2004; Jang, 2006)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내의 연구들이 있고, Harold, Finchman, Osborn, & Conger(1997)의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의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간접 경로만이 유의미하였고, 내현화의 경우에는 여아에서는 간접경로만 유의하였으나 남아에서는 직·간접 경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3.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간의 경로 차이 검증

남자 중학생 집단과 여자 중학생 집단간 유의한 경로의 차이는 결과표의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 에서 확인할 수 있다(Table 8). 결과표에서 [b1_1] 와 [b1_2] 의 C.R 값은 -1.982로 통계적으로 유의(±1.965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간 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 중학생 [b1_1] 과 여자 중학생 [b1_2]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 남자중학생 집단의 공격성은 여자 중학생 집단보다 부부간 갈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자 중학생의 공격성이 여자 중학생보다 부모간 갈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남자와 여아 간에 문제유형이나 그 정도에 있어 성차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Johnson & O’Leary, 1987; Long et al, 1988; Mok, 2012 재인용)와는 차이가 있다. Grych & Finchman(1990)도 부부갈등에 의해 자녀의 심리적 적응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와 직접적인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자녀양육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간 갈등은 여자 중학생의 점수가 남자 중학생의 점수보다 하위 요인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격성 변수에서는 부정성을 제외한 하위 요인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중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부부간 갈등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지각한 부부간 갈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거나(Jang, 2010; Hong, 2011; Park, 2012)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Park, 2012; Kim, 2005)들이 혼란된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부부간 갈등 지각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여자의 경우 대인관계에 민감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모의 갈등을 남자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부부간 갈등 하위 요인에서 남자와 여자 중학생의 점수가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은 빈도라는 것에서도 딸의 경우 부모의 사소한 갈등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딸은 부모의 갈등빈도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간 갈등을 표출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도록 부부간 갈등의 불가피성과 부부간 갈등이 자녀에게 위협이 되지 않음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 가정과 교과서에 가족갈등의 특성, 가족 갈등 관리기술, 가족 의사소통 단원을 포함시켜 정규 수

Table 8.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 ;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a1_1	a2_1	a3_1	a4_1	b1_1	a5_1	a6_1
a1_2	-0.767	-1.254	1.190	-0.020	7.732	2.523	.306
a2_2	-0.082	-0.578	1.918	.692	8.230	3.177	1.010
a3_2	-1.072	-1.575	.993	-0.299	8.376	2.445	.052
a4_2	-0.551	-1.057	1.520	.237	8.474	2.883	.575
b1_2	-8.777	-8.972	-8.522	-8.759	-1.982	-6.219	-8.395
a5_2	-3.262	-3.679	-1.671	-2.684	5.063	-1.103	-2.344
a6_2	-1.546	-2.022	.368	-0.829	7.318	1.811	-4.489

업시간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할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부부간 갈등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의 연구결과 (Lee, 2009; Jo, 2010; Cho, 2010)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간 갈등이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부부간 갈등 자체만으로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부부간 갈등이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고, 이런 스트레스가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부부간 갈등이 자녀에게 학습되어 긍정적인 또래관계 유지를 방해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따라서 부모들은 부부관계의 갈등적 상황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부부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는 부모교육이나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갈등해결 기술을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남자 중학생 집단과 여자 중학생 집단간에 부부간 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각 집단별로 분석된 결과를 비교하거나 하나의 집단을 분석하여 부부간 갈등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여 경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부부갈등이 남자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0.434(p<.001)$)과 여자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0.243(p<.001)$)의 C.R 값은 -1.98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갈등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 갈등이 남자 아이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남자 중학생은 부부간 갈등을 여자 중학생보다 낮게 평가했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부부관계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부모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 부모의 갈등 상황을 통해 공격적인 행동을 학습할 환경에 노

출 되고,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부간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잘 대처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촉하게 되는 환경 중에서 초기 환경이며 최초의 사회생활의 장으로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가치관 등을 형성하는 곳이다.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가 친숙하게 관찰하는 대인관계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부관계 자체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모가 자신들의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표출과 원만한 해결과정을 보여 주는 것은 자녀가 인간관계를 배우고 훈련하는 장이 된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양육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e, J. R. (2012).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the aggressiveness of withdrawn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 Block, J. H., Block, J., & Gjerdr, P. J. (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Child Development, 57(Aug)*, 827-840.
- Buc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 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15-78.

- Buchman, C. K., Maccoby, E. E., & Dornbush, S. M. (1991). Caught between parents: Adolescent's experience in divorced homes. *Child development*, 62, 1008-1029.
- Che, Y. G. (2005).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and exposure to violence on aggression in elementar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and spirituality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2), 151-171.
- Cheon, S. H. (2008). *Effects of abuse perpetrated by parents on adolescent self esteem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 Cho, H. J. (2008). *The effects of parents & peers praise activity program on school adjustment of maladjusted children in law grade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ongju National University, Grongju, Korea.
- Cho, J. H. (2008). *The effect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on an their adjustment in school lif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Cho, J. Y. (2010). *Pathway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effects of media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ohn, L. D. (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2), 252-266.
- Crick, N. R., & Grop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ummings, E. M., Davies, P. T., & Simpson, K. S. (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2), 141-149.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oh, Y. K. (2005). *The effects of the vulnerable family on the depression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The protective effect of social supports and personal feat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National, Seoul, Korea.
- Grych, J. H., & Finchman,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Harold, G. T., & Miles, C. J. (2003).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3(3), 279-295.
- Grych, J. H., Seid, M., & Finchman,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Finchman, F. D., Osborn,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ti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 Psychology*, 33, 333-350.
- Harold, G. T., Finchman, F. D., Osborn,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ti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 Psychology*, 33, 333-350.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 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ti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87-697.
- Hong, S. H. (2011). *The moderating effect of father/mother-adolescent closeness ga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and their adjustment in school life and self-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J. A. & Shin, H. C. (2006).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s maladaptation: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3), 569-592.
- Jang, J. A. (2006). *The influence of martial conflict on children's maladaptation: Focusing on ego resilienc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owon, Korea
- Jang, J. S. (2004). *Parent's martial conflict and their children's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E. O. (2010). *Effect of marital conflict and stress on emotional / behavioral problems with resilience as a mediator in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 University, Busan, Korea.
- Jeon, J. A. (2007). The effect of husband and wife conflicts on peer relationships among juveniles: By the medium on self perception and depression.
- Jo, A. J. (2010). The effects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attachment on maladjustment behavior of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Johnson, P. L., & O'Leary, K. F. (1987). parental behavior patterns and conduct disorders in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4), 573-581.
- Kim, E. H. (2005). *The impact of martial conflicts perceived children on their peer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2003). *The relationship among interparen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10). *The influence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friendship: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J. A. (2010).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parental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Kim, J. E. (2011). *The effects of anger-control training by cyber counseling on children's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Korea.
- Kim, J. N. (2011). *The effects of perceived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child's temperament,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and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nwon, Korea.
- Kwon, Y. H. & Lee, C. D. (1997). A Validation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8*(1), 65-80.
- Lee, H. S. & Chung, O. B.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the Adolescent's Offensive Characte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10), 47-62.
- Lee, M. S. & Oh, K. J. (2000). Effect of perceived martial conflict o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727-745.
- Lee, S. H. (2012). *The effect of after-school sports participation on youth's psychological variables (depression, aggression,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S. Y. (2009). The relation between martial conflict and maladjustment behavior in the high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 University, Daegu, Korea.
- Lee, Y. M. (2006). *Aggression reduction program: Targeted at elementary school of low-wage cla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im, S. J. (2005).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Focusing on moderation the effect of cop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Lock, J. H., Block, J., & Gjerdr, P. J. (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Child Development*, 57(Aug), 827-840.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h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67-469.
- Mok, I. G. (2012) *The effect of interparental conflict perceived by Children and stress coping behavior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 Nam, M. Y. (2010). *Mediator effect of mal treatment in terms of the parental conflict impact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Korea.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 relations: Does gender matter. *Merrill Palmer Quarterly*, 42, 48-75.
- Park, E. (2012).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f low-income family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 Mediated by father-children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Park, J. H. (2012). *The Influence of martial conflic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 on an adjustment to school life: mediating effect of self differentiation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 Yang, H. J.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tal conflict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as a function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u, J. P. (2012). *Conception and comprehens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narae Publishing Co. Seoul,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부부갈등이 남자와 여자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4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다중집단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부간의 갈등은 여자 중학생 집단이 남자 중학생 집단보다 높게 지각하였고, 중학생이 인식한 부부간 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남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양육에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부부간 갈등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12월 4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2월 14일